

숯 이용 골판지 상자 '비제이 숯박스' 개발

포장 신기술 접목 노력으로 차별화 성공

전민호 / (주)BJ산업 대표이사

여러 가지 포장재 중 골판지는 농수산물의 저장, 유통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인식된 이래,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포장업계에 기능성 포장 용기들이 무수히 개발돼왔지만 비용이나 대량생산 측면에서 상용화 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지난 7월 저장력이 뛰어난 숯을 이용,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골판지 상자를 개발한 (주)BJ산업 전민호 대표이사를 만나 제품 개발 경위 및 특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유럽 및 일본에 비해 농산물 포장분야에서 뒤떨어졌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WTO시대, 밀려오는 저가 수입농산물에 대해 속수무책일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숯박스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농산물을 백화점 및 할인매장에 납품하는 유통업을 수년간 해온 전민호 사장은 농산물 운반수단에 기능성을 부여해 신선도를 오래 유



지할 수 있는 기능성 박스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농산물의 저장 관련 연구 분야에 몰두한 전 사장과 BJ산업은 99년 2월 숯을 종이에 인쇄하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데 이어 다음해 6월, 골판지 박스에 인쇄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전민호 사장은 농산물 저장기간을 연장시키고 항균성을 기능을 하는 숯을 기능성 박스에 도용할 것을 생각, 농산물 저장에 관한 정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조현진 박사의 자문을 받아 수많은 실패와 노력 끝에 숯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제이 숯 박스'를 개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됐다.

“건국대학교 동물자원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 풋고추의 경우 4°C에서 20일정도 저장기간이 증가하고 상온에서는 3~4일 정도 증가하는 등 농산물의 저장기간이 현격히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민호 사장은 비제이 숯 박스에 풋고추를

개발혁신으로 포장유통업계 일익담당

비롯한 양송이, 딸기, 오이를 시험한 결과 놀라운 신선도 유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비제이 숯 박스’는 일반박스 겉면에 상품명이나 생산자를 광고하기 위한 것처럼 박스의 내부에 특정한 문양이나 글씨를 별도의 장치없이 대량으로 인쇄해 생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종전 포장박스 겉면에 인쇄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쇄기계에 숯 물질을 원료로 해서 박스의 내부 저장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관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도 농산물의 저장 기간을 현격히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다.

농산물의 장시간 저장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맹독성 농약까지 불법 사용하며 유통하고 있는 것이 국내 농산물 유통업계의 현실이라고 개탄하는 전 사장은 소비자와 농민 입장 모두에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제이 숯 박스’와 같은 기능성 박스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민호 사장은 적당한 수분 유지를 조절할 수 있는 ‘비제이 숯 박스’를 쌀 포장에 적용하면 바구미나 애벌레의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수분유지로 신선도를 증가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농

협 및 대형 매장과의 거래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 사장은 ‘비제이 숯 박스’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차별화”를 경영방침으로 세우고 제품이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포장유통 시장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국내 뿐 아닌 유럽, 미주 등 국외 시장과의 계약도 검토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전민호 사장은 기업의 전략적 관심 분야가 생산에서 물류 및 유통 체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그것의 혁신은 포장산업의 질적 변화없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포장전시회를 참관하고 농산물 유통센터 시찰을 통해 국내 포장업계의 저임금 및 열악한 작업 환경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골반지를 비롯한 포장업계가 자사만의 독특한 기술개발 투자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다른 사람들과 같아서는 발전할 수 없기에 철저한 차별화를 가슴에 새기고 최선을 다했다”고 당차게 밝히는 전민호 사장이 앞으로도 신기술 접목을 통해 포장 업계에 일익을 담당하길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